

대림절, "마음 속 빈 의자 준비하세요"

기사입력 2016-12-02 21:36 | 최종수정 2016-12-02 21:43

[CBS 노컷뉴스 조혜진 기자]

■ 방송 : CBS TV (CBS 주말교계뉴스, 12 월 2 일(금) 밤 9 시 50 분)

■ 진행 : 조혜진 앵커

■ 대담 : 김명실 교수 (영남신대)

◇ 조혜진 > 지난 27 일 주일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. 대림절은 성탄절 전 4 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.

오늘은 영남신대 김명실 교수와 함께 대림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 교수님, 어서 오십시오.

◆ 김명실 > 네, 반갑습니다.

◇ 조혜진 > 먼저 대림절이란 어떤 절기이고요,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?

◆ 김명실 > 네, 대림절이라는 것은 그 언어 자체가 라틴어로 ‘어드벤투스’ 라는 말로 시작됐거든요. 그리고 영어로는 ‘어드벤처’ 그래서 원래 유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. 이방 종교에서 신들이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찾아 내려오는 그런 의미였고, 로마 제국에서는 이 의미를 로마 왕이 처음 가는 지역에 방문하게 될 때 사람들이 ‘어드벤처’, ‘어드벤투스’ 라고 불렀습니다.

그런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이 용어가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때부터 ‘어드벤처’ 는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용어로 남게 되었죠.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.

◇ 조혜진 > 아, 대림절에는 이른바 ‘기다림 초’ 를 준비하기도 하잖아요. 보라색부터 흰 색까지 네 개의 초를.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?

◆ 김명실 > 네, 초 자체에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. 초들이 켜지는 빛, 초들이 태워서 나타내는 그 빛에 의미가 있는 거고,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초가 하나씩 켜지면서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에 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

그래서 초 하나하나 마다 소망의 초, 기쁨의 초, 사랑의 초, 이렇게들 많이 붙이시는데 초에다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그 초가 점점 밝아지는, 첫째 주, 둘째 주, 셋째 주 점점 밝아지는 그 빛의 강도에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.

◇ 조혜진 > 그렇군요. 그럼 대림절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?

◆ 김명실 > 네, 대림절은 원래 이게 처음에 4 세기의 증언에도 있습니다. 380 년대부터 그 기록에서 증언이 있듯이 아주 오래된 그런 시간이었고요. 사순절처럼 엄격하게 그렇게 실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그게 6 주까지도 확장 됐다가 6 세기경에 그게 4 주로 정해졌는데 그 중에 두 주는 다시 오실 심판자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주로 보냈고요. 나머지 두 주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.

그렇다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? 무엇보다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,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고 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, 공의의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고요.

또 아기 예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, 또 빈 마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전통적으로 사실 대림절에서 제일 중요한 상징은 초보다도 빈 의자였어요. 그래서 아주 고대 교회부터 예배당에

가면 이 대림절을 가장 상징하는 의자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. 그것은 마지막에 통치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남겨둔 빈 의자인데, 그게 우리 마음에도 대림절 기간에 빈 의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



대림절 기간, 마음에 그리스도의 빈 의자를 준비해 보자.

정신 없이 우리가 일 년 동안 바쁘게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 시간만큼은 다시 비워두고, 내 중심에 그리스도의 빈 의자를 남겨두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제대로 보내는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
◇ 조혜진 > 네, 대림절을 보내고요.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이걸 좀 다른 얘기 일수도 있습니다만 ‘성탄절이 왜 25 일일까?’ 이것에 대해서도 최근에 한 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.

◆ 김명실 > 네, 12 월 25 일이라는 날짜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가설이 있어요. 그 가설은 그것이 로마에서 당시에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것을 흡수한 것이 아닌가? 그런 가설들이 지금까지 많이 내려져 왔는데, 사실은 4 세기에 히폴리토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기록물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

고대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임신과 출산 여기에 대한 기간, 자기들만의 계산법이 있었어요. 여성의 임신 기간은 9 개월 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사람이 죽은 날짜가 원래 자기의 잉태된 날짜라고 믿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양력으로 계산하면 3 월 25 일이에요. 그러면 거꾸로 그 날이 돌아가신 날이라면 그 날이 잉태하신 날이라고, 어머니 뱃속에.

그러면 임신 기간이 9 개월이라고 했죠.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9 개월을 하면 12 월 25 일이다. 그래서 이미 4 세기에 로마의 감독, 아주 유명한 저명한 사람이죠. 히폴리토스가 그러한 기록을 남겼는데, 감사하게도 이 히폴리토스의 의견이 재조명 받으면서 12 월 25 일 탄생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.

◇ 조혜진 > 아하, 그렇군요. 성탄절 준비로 사실 교회가 바쁜 때이긴 해요.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성탄절 준비도 그렇고, 대림절도 그렇고 교회와 사회가 많이 간소화 됐다, 좀 분위기가 안 느껴진다.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?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지 한 번 짚어 주시고,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번 전해주시겠어요?

◆ 김명실 > 복음은 문화를 입어야 되는 거고요.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어떤 가시적인 문화나 어떤 예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흡수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를 합니다.

우리가 지나치게 간소화 하고, 또 세속 문화에 밀려서 성탄을 지키고 또 대림절을 지키고, 그런 절기들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또 생략하는 문화는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기독교 100년, 500년, 1000년의 역사를 써 나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간소화 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.

만일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른 세속 문화가 우리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상업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기독교 문화들을 다 우리가 다시 회복, 정리하고, 순수한 그런 진정성이 담긴 교회력, 또 교회 절기들을 회복한다면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줄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교회의 어떤 신앙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

◇ 조혜진 > 네, ‘교회의 성탄 문화가 세속 문화에 의해서 덮이고 있다’ 이 말씀은 좀 교회가 되잖아 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김명실 교수님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

◆ 김명실 > 네, 고맙습니다.

jeenylove@cbs.co.kr

출처

<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3&sid2=244&oid=079&aid=0002902240>